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동기에 관한 연구

장경희¹, 강경희², 김두리³, 임효남³, 김광환^{4*}

¹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학예술치료학과, ²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³건양대학교 간호대학, ⁴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A Study on the Motivation to Write Signing Advance Medical Directives

Kyung-Hee Chang¹, Kyung-hee Kang², Doo Ree Kim³, HyoNam Lim³, Kwang-Hwan Kim^{4*}

¹Dept. of Literary and Arts Therapy, The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²Dept. of Dental Hygiene, Konyang University, ³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⁴Dep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S시 소재의 C 기독교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조사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0일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동기에 관해 4개 주제와 8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는 '자식들을 위해서',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내 삶을 잘 정리하고 싶어서', '필요성을 느껴서' 등의 4가지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하부주제로 '자식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자식들에게 의료비 부담주고 싶지 않아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가족의 임종을 돌본 경험이 있어서',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느껴서', '그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결심하게 되어서', '정보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결심하게 되어서'였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들의 좋은 죽음을 위한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효과적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atient's advantage and respect self-decision to protect human dignity and values, who are on the pathway of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death process. The study subjects were the elderly who had signed the advance medical directives at C Christian religious facilities in S region. The survey period was started on July 1st, 2019 and lasted for ten days. The study resulted in four topics and eight sub-topics on the motivation for preparing advanced medical directives. The four topics were 'for children', 'fear of pain', 'want to clear my life', 'felt the necessity', and the sub-topics were 'don't want to make a burden to children', 'don't want to make a worry of medical expenses', 'fear of pain', 'have experience of taking caring of painful death process', 'relaxed mind', 'importance of self-decision', 'have known it before but now decided', and 'it is the new information and decided'.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form the basis for improving well-dying education programs for the good death of the elderly and supplementing effective systems for preparing advance medical directives.

Keywords : Advance Medical Directives, Hospice, Palliative Care, Well-Dying, Dementia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6066807)

*Corresponding Author : Kwang-Hwan Kim(Konyang Univ.)

email: kkh@konyang.ac.kr

Received August 30, 2019

Accepted October 4, 2019

Revised September 30, 2019

Published October 31, 2019

1. 서론

현대의학과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켰고 수명연장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임종 장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에는 대부분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였으나 2003년을 기점으로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2018년 한 해 총 사망자 29만 8천 9백 명 중 76.2%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였다[1].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해 여러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연명하다 죽음을 맞는 경우가 있다. 많은 환자들은 임종기에 이르렀을 때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대부분 가족들이 의사결정 대리인으로서 연명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가족들은 환자를 대신하여 연명의료의 중단을 결정하는 것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을 경험한다[2]. 환자와 사전에 연명치료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나누지 않았거나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간에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며, 환자는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계속 받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환자의 의사결정은 중요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자신이 원하는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을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3].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사건의 연명의료 중단 판결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2016년 2월에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로서 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하며,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016년 2월 법제화 이후 1년의 시범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2018년부터 2019년 6월 현재까지 작성한 사람은 25만 6천여 명에 이른다[4]. 그 중에 60세 이상이 22만 3천명으로 87%를 차지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동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에 연구된 선행 논문들은 재가 및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경험 및 선호도[5],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도 영향 요인[6], 일개 대학병원의 연명치료 선택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현황[7] 등의 연구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들 중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어떤 동기로 작성하였는지에 대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제도적 보완과 실제적인 웰다잉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S시 소재의 C 기독교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를 직접 만나 연구의 목적과 연구 수행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한 그룹 당 3-4명으로 구성하여 3그룹을 인터뷰 하였고 ,총 10명이 참여하였다.

2.2 연구방법

연구 진행 전 S시의 C 기독교 종교시설의 기관 담당자를 만나 연구와 관련하여 기관의 승인을 받았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그룹 당 1회 약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인터뷰 전 솔직한 답변 추출을 위하여 연구대상자와의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설명하여 서면동의를 받았다.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가 됨을 알리고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였다.

2.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녹음된 면담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며 필사하였다. 인터뷰 진행 중 작성한 메모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사한 내용을 수차례 읽으면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공동연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적인 요소를 기술하였다.

2.4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시작 전 K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IRB No. KYU-2019-234-01).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면담시작 전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연구는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며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만둘 수 있으며 연구 참여를 거부하여도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면담내용의 녹취과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동의를 받았으며 본 연구의 참여 도중 탈락한 연구대상자의 녹음 내용은 즉시 제거되고 연구 분석과정에 포함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3. 분석결과

본 연구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동기에 관해 4개 주제와 8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는 ‘자식들을 위해서’,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내 삶을 잘 정리하고 싶어서’, ‘필요성을 느껴서’ 등의 4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하부주제로 ‘자식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자식들에게 의료비 부담주고 싶지 않아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가족의 임종을 돌본 경험이 있어서’,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자기 결정권의 중요성을 느껴서’, ‘그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결심하게 되어서’, ‘정보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결심하게 되어서’였다.

연구대상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겪었던 가족과 지인의 어려움을 표현하였으며, 어려움을 자식에게 남겨주지 않으려고 하였다. 고통 없는 임종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편안한 마음이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 진술을 하였다.

Table 1. Topic and sub-topic

Topic	Sub-topic
For childr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n't want to make a burden to children · Don't want to make a worry of medical expense
The fear of p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ear of pain · Have experience of take caring of painful death process
Want to clear my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laxed mind · Importance of self-decision
Felt the necess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ve known it before but now decided · It is the new information from lecture and decided

3.1 자식들을 위해서

본 연구결과 첫 주제는 ‘자식들을 위해서’로 자신은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자식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자식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등의 하부주제가 도출되었다.

3.1.1 자식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연구대상자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며 자식들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할 것을 걱정하였다.

“자식들 고생시키고 하는 것 보다는 작성하는게 나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혈전 있어서 10년을 고생했어. 급하게 연락이 와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면 새벽 1시 2시까지 병원에 있는 거야. 응급실에서는 간 병인도 못 쓰고 어디 앉을 곳 없어. 죽을 맛이야.”

“내가 큰 딸이고 또 서울 사니까 밤이면 병상을 지켜야 되는데... 아버지 면도해드리고 대소변 다 받아내고.. 내가 해보니까 어려워.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누가 예뻐하겠어요. 자식들만 고생하는 거지.”

“자식들 속 안씩이고 마음 편한 것이 좋지. 들어보면 엄청 고달프더라고. 자손들이 정말 빼지도 못한다며 고민하면 우리 마음이 안 편안하잖아요.”

3.1.2 자식들에게 의료비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연구대상자들은 자식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며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부모가 돈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가족들끼리 싸우고 난리야. 첫 번째 입원은 형제들끼리 돈을 모아서 해결했는데, 두 번째는 동생이 돈이 없다고 해서 힘들었어. 돈을 안 내놓으니까. 그렇다고 부모를 또 내버리고 갈 수는 없는 거고. 보통 문제가 아니야.”

“난 자식들한테 금전적 부담이 가지 않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3.2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본 연구결과 두 번째 주제는 자신이 통증 등으로 고통스러울 것을 걱정하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임종기에 이르렀을 때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 하였고, 연명

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했던 가족을 돌본 경험을 진술하였다.

3.2.1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연구대상자들은 연명치료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 고통의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오랫동안 고생하느니 고통 없이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고 하였다.

"항암제 맞으며 연명치료를 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더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의료의향서인줄은 몰랐는데 강의를 듣고 바로 결정했어요." "생각만 해도 힘들 것 같아 너무 두려워요. 그런 고통은 느끼고 싶지 않아 작성했어요."

3.2.2 고통스러워하는 가족들을 돌본 경험이 있어서

연구대상자들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가족을 돌본 경험에 대해 진술하면서 환자가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저희 어머니가 73세 때 폐혈증으로 입원하셨어요.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는데, 2주가 지나니 목에 구멍을 뚫어서 숨을 쉬어야 한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던지... 그런데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만 하지 자신 있게 책임지겠다는 말을 안하더라고요..." "연명치료를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했던 환자를 가족으로 두었던 사람은 알려주세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3.3 내 삶을 잘 정리하고 싶어서

본 연구결과 세 번째 주제는 '내 삶을 잘 정리하고 싶어서'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임종기에 이르렀다면 삶을 잘 마무리하고 떠나고 싶다고 했다. 이는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이며,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인공호흡기를 거절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한 지인들을 보고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느껴서' 임종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3.3.1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연구대상자는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죽음을 준비함으로써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진술을 하였다.

"작성하고 나니 마음 편해요. 며칠만 있으면 가겠구나. 그런 생각 밖에 안들지. 하나님한테 가겠구나."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거보다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거니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결정하고 나니 삶의 짐을 덜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한테도 짐을 덜어주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요."

3.3.2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느껴서

연구대상자는 환자가 인공호흡기 적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실히 하고 문서를 작성해놓았기 때문에 편안한게 임종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친구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인공호흡기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응급실을 두 번, 세 번 갔었는데 돌아가셨대요. 병원에서는 인공호흡기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의료의향서를 작성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법제화 되기 전인데 자기 몸이 자꾸 아프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러니까 그걸 써서 이번에 호흡기를 안하고 돌아가셨다고..." "자기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대신 결정하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미리 정해놓아야지."

3.4 필요성을 느껴서

본 연구결과 네 번째 주제는 '필요성을 느껴서' 작성하게 되었다는 진술이다. 웰다잉 교육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을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결심하게 된 경우'와 이번에 강의를 듣고 '이런 정보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결심하게 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3.4.1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결심하게 되어서

연구대상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전부터 알고는 있었으나 결심하지 않고 있다가 웰다잉 교육을 받고 확신이 들어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전부터 마음은 있었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강의 듣고 나서 작성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할 수 있다고 지인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때는 작성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강의 들으면서 결심 했어요."

3.4.2 정보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결심하게 되어서

연구대상자는 연명의료결정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어 바로 작성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모르는 주위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진술도 하였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쓸 수 있는 곳도 모르고, 알지도 못했고, 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몰랐으니까."

"그 전에는 이런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여기에 와서 강의 듣고 작성했어요."

"이제 보급되기 시작 했다고 하는데 들은 사람은 다들 하고 싶어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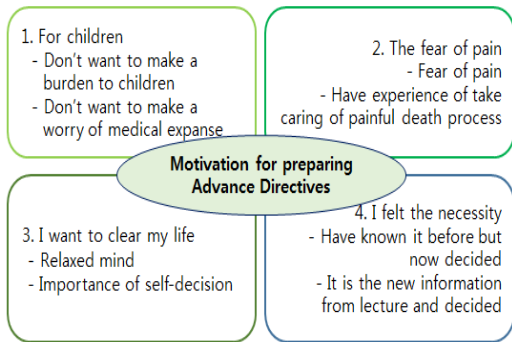


Fig. 1. Motivation for preparing advance directives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어떤 동기에 의해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의미를 파악하는 질적연구이다. 임종기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법적 양식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동기를 파악함으로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제도적 보완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동기에 대해 첫째, 자식들을 위해서 작성하였으며 '자식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자식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유사연구로 말기환자 가족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 경험 연구[8]에서도 장기간 환자 돌봄으로 인한 가족의 소진과 의료비부담이 되어 결정했다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둘째,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오

랫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생을 하느니 '고통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싶어 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필연적으로 겪는 두려움 중 하나는 통증이나 고통과 관련이 있다[9]. 또한 연구대상자들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고통스러워하는 가족들을 돌본 경험이 있어서' 그 고통을 알기에 연명의료를 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의미 없는 장기간의 치료와 입원 생활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준다[10,11]. 셋째, '내 삶을 잘 정리하고 싶어서' 작성했다고 그 동기를 밝히고 있다.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죽음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며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한다고 하며, 건강하고 의식이 명료할 때 '자기결정권'을 갖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살아온 삶을 잘 정리하는 것이다[12].

넷째, '필요성을 느껴서'라고 하였는데 웰다잉 교육의 한 과목으로서 '연명의료결정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강의를 들으며 필요성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결심'한 경우와 '강의를 듣고 이런 정보를 처음 알게 되어 결심'한 경우가 있었다. 즉 메스컴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어디서 작성하는지도 몰라 구체적으로 작성할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강의를 들으면서 자세히 알게 됨으로써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니 많은 사람들이 작성하고 싶어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삶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러서도 자식을 배려하는 마음이 강하게 나타난다[9].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것이 자신보다 자식들의 형편이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를 하게 되면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짐이 될까 봐 걱정을 하였다[1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결정의 권리로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한다[4]. 이를 위해서는 연명의료에 대해 가족들과 정서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족문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삶과 죽음의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나아가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사회적 교육 즉 웰다잉 교육이 요구된다[14].

웰다잉 교육을 통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게 되자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함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였다. 그 전에 다른 사람들

에게 전해들은 정보는 법의 목적이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기에 부족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웰다잉 교육확대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에 관한 방법 등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15].

본 연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동기를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고 그들의 동기가 추후 노인들의 좋은 죽음을 위한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효과적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한 개의 기관을 방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기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를 확대하고 양적·질적인 연구 검증을 통해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8 population trend survey statistics, preliminary results of death statistics, Statistics Korea, 2019, pp.11~15.
- [2] J. H. Jeong,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of end-of-life care,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advance directive, and the educational needs regarding writing advance directives among nurses in general hospital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Nursing Sungshin University, Seoul, Lorea, pp.1-84, 2018.
- [3]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he law about Hospice Palliative Care an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System for Patients in the Dying Process, 2016.2.3.[Legislation].
- [4] KONIBP, Advance Directives Enrollment Status, <https://www.lst.go.kr/comm/monthlyStatistics.do>, 2019.08.27.[Quotation]
- [5] J. W. Park, J. A. Song, Knowledge, "Experience and Preference on Advance Directives among Community and Facility Dwelling Elderly", *Journal of the Korecan Gerontological Society*, Vol.33, No.3, pp.581~600, 2013.
- [6] M. S. Kim, M. H. Kang, Y. O. Kim, "Completion and Related Factors of Advance Directives in old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18, No. 2, pp.240-247,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2.240>
- [7] H. M. Yoon, Y. S. Choi, J. J. Hyun, "Current situation on signing advance medical directives and actual life-sustaining treatment given at a university hospital",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14, No.2, pp.91-100, 2011.
- [8] M. H. Kim, E. H. Kang, M. Y. Kim, "Family Decision-Making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erminally-Ill Patients in an Unconscious State",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15, No.3, pp.147-154, 2012.
DOI: <https://doi.org/G704-SER00009021.2012.15.3.004>
- [9] Konyang Well-Dying Convergence Research Society, *Well-Dying Understanding and Practice*, pp.109, soomoonsa, 2018.
- [10] D. Y. Kang, H. W. Shim, "Attitude of Elderly People on Life Support Care: Q 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12, pp.355-369, 2012.
DOI: <https://doi.org/10.5392/JKCA.2015.15.12.355>
- [11] W. K. Chang, K. J. Ahn, M. Y. Kim, Y. R. Kim, Y. J. Han, "The Role of a Patient's Family When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Expected: A Narrative Analysi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18, No.2, pp.172-189, 2015.
DOI: <https://doi.org/10.35301/ksme.2015.18.2.172>
- [12] K. S. Kim, M. H. Gang, Y. O. Kim, "Completion and Related Factors of Advance Directives in old adul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2, pp.240-247,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2.240>
- [13] H. N. Lim, B. L. Lee, T. H. Cha, K. K. Kim,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daily life and chronic disease management of elderly living alone : Focus group interview",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4, pp.111-118, 2018.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4.111>
- [14] K. J. Lee, S. O. Chang, "Development of Advance Directives for Nursing Home Resident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21, No.2, pp.75-85, 2019.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2.240>
- [15] H. J. Hwang, K. H. Kim, "A Convergence Study on the Decision and Attitude of Korean 'life-prolonging medical care' according to whether or not relig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8, pp.257-265,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8.257>

장 경 희(Kyung-Hee Chang)

[정회원]



- 2017년 2월 :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생명교육융합학과 (문학석사)
- 2018년 4월 ~ 현재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학예술치료학과 박사 재학

<관심분야>

죽음교육, 웰다잉, 삶의 질, 문학예술치료

임 호 남(HyoNam Lim)

[정회원]



- 2001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학사)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17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암환자, 노인, 치매, 전문간호사, 삶의 질

강 경 희(Kyung-hee Kang)

[정회원]



- 2010년 2월 : 경북대학교 미생물학과 (이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치위생, 구강보건, 노인, 삶의 질, 치매

김 광 환(Kwang-Hwan Kim)

[종신회원]



- 2001년 2월 : 계명대학교 공중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무기록정보, 보건관리, 웰다잉, 노인, 삶의 질, 치매

김 두 리(Doo Ree Kim)

[정회원]



- 2007년 3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학사)
-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16년 8월 ~ 현재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관심분야>

치매, 노인, 가족, 삶의 질, 극복력